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권장수종

1. 추진배경

- 3천만 그루 나무심기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 증대를 위한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20.1.6., 평가협업담당관(現 평가담당관) 의견]
 - 미세먼지 줄이는 데 효과적인 우리시의 권장수종 선정 필요
 - 서울시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유형별 숲 조성방안 마련

2. 권장수종 선정 검토기준

- ① 산림청 미세먼지 저감 수종 중 서울의 도시환경에 생육이 가능한 수종
- ② 수관가지와 잎이 대체적으로 치밀한 수종
- ③ 도시에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수종
- ④ 서울지역으로 조달이 용이한 수종

3. 세부 검토방법

- 서울(중부지역)에 생육이 가능하여 식재공사에 활용되는 수종
- 식물형태에 따른 ‘교목’, ‘관목’, ‘지피류’로 구분·제시
- 현재까지 제시된 다양한 관련 수종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 적합성 검토를 통해 선정
 - 산림청 미세먼지 저감 수종 : 산림청 권장 주요 조림수종(76종), 2018년 조달청 고시 조경수목(246종) 및 주요 지표면 피복 수종(70종)
 - 서울시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 중 도입 가능수종 : 교목 21종, 관목 19종, 지피류 16종
- 이식 활착이 어려우며, 생활지역 내 적용 곤란 수종(웃나무 등) 등 제외
 - 주요 제외 수종(209종) : 가시나무류, 녹나무, 웃나무, 구상나무, 분비나무, 오리나무, 개잎갈나무(히말라야시다), 석류나무, 푸조나무, 나한송 등
- 기타 시장에서 유통 중인 주요 수종 사례 24종 제시(서울시 생육 중인 수종 중심)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권장수종(113종) 이외의 변종·품종·개량종 등 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종을 포함한 다양한 수종 중 미기후, 선호도, 경관, 토양 습윤 상태 등 대상지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 검토

3.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권장수종

○ 총 113종 : 교목 48종, 관목 38종, 지피류 27종

구분	교 목 (48종)	관 목 (38종)	지 피 류 (27종)
상 록 (24종)	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 잣나무, 주목, 향나무, 서양측백, 측백나무 (7종)	회양목, 남천, 사철나무, 황금사철나무, 조릿대, 황금측백, 눈주목, 눈향나무, 옥향, 꽃댕강나무 (10종)	줄사철, 빈카, 수호초, 송악, 아이비, 맥문동, 속새 (7종)
낙엽 (89종)	느티나무, 낙우송, 메타세콰이아, 이태리포플러, 상수리나무, 갈참나무, 굴참나무, 대왕참나무, 루브라참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 벗나무, 산벗나무, 왕벗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 칠엽수, 모감주나무, 목련, 백목련, 자목련, 백합나무(목백합, 튜립나무), 팔배나무, 산사나무, 수양버들, 능수버들, 양버들, 왕버들, 중국단풍, 청단풍, 홍단풍, 공작단풍(수양단풍), 복자기, 회화나무, 배롱나무, 산수유, 산딸나무, 느릅나무, 자귀나무, 때죽나무, 계수나무 (41종)	덜꿩나무, 병꽃나무, 산수국, 나무수국, 마가목, 불두화, 쉬땅나무(개쉬땅나무), 양매자, 매자나무, 영산홍, 조팝나무, 꼬리조팝나무, 삼색조팝나무, 좁작살나무, 쥐똥나무, 황매화, 흰말채나무, 개나리, 박태기나무, 명자나무, 수수꽃다리, 라일락, 화살나무, 병아리꽃나무, 국수나무, 히어리, 고광나무, 칠자화 (28종)	능소화, 비비추, 꽃잔디, 패랭이꽃, 배초향, <u>담쟁이</u> , <u>미국담쟁이</u> , <u>인동</u> , 물레나무, 벌개미취, 사초류, 수크령, 옥잠화, 원추리, 구절초, 아주가, 톱풀, 쭉부쟁이, 억새, 감국 (20종) ※ 밑줄 된 수종은 만경류(상록,낙엽)

< 시장에서 유통 중인 주요 수종 사례 24종(서울시 생육 가능 수종 중심) >

구분	교 목 (6종)	관 목 (5종)	지 피 류 (13종)
상 록 (13종)	스카이로켓향나무, 에메랄드그린, 블루엔젤, 키다리 황금측백 (4종)	금사철나무 (1종)	무늬맥문동, 바위취, 사사, 사사조릿대, 애란, 섬기린초, 황금달맞이꽃, 펜스테몬 (8종)
낙엽 (11종)	꽃산딸나무, 처진개벗나무(수양벗나무) (2종)	죽단화, 정향나무, 만첩빈도리, 삼색버들 (4종)	산국, 층꽃, 주걱비비추, 초롱꽃, 금낭화 (5종)

※ 단, 상기 수종에서 제시되지 않은 수종이라도 대상지 환경여건을 고려하되 수종의 기능과 역할을 감안하여 검토 후 식재 가능